

전북대학교 글로벌 대학평가 2위

영국 Times사 '2016 아시아대학평가' 국립대 부문에서...종합대학은 14위

세계 22개국 상위 200개 대상 교육여건 등 5개 분야 평가

전북대학교가 올해 발표된 각종 글로벌 대학평가에서 부산대에 이어 2위에 랭크되며 높아진 경쟁력이 안정권에 접어들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0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6월 발표된 영국 Times사의 '2016 THE 아시아대학평가'에서 국립대 2위, 국내 종합대학 14위에 올랐다. 이번 평가는 세계 22개국 상위 200

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25%)과 연구(30%), 논문피인용(30%), 국제화(7.5%), 산학협력실적(7.5%) 등 5개 분야를 면밀히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이에 앞서 발표된 '2016 QS 아시아 대학평가'에서도 전북대는 국립대 2위, 국내 종합대학 15위에 올랐다.

아시아에서는 97위로 지난해에 이어 Top100을 수성하며 세계무대에서의 경쟁력도 인정받고 있다. 아시아 17개국 507개 대학을 대상

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는 연구 영역 55%, 교육수준 15%, 졸업생 평판도 20%, 국제화 10% 등 4개 항목을 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매긴 것이다.

전북대가 지난해에 이어 국립대 2위, 국내 종합대학 10위권 초반의 성적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것은 대학 연구 경쟁력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북대는 전북 지역보다 경제 규모가 2~3배에 이르는 영·호남, 대전·충청 지역 주요 국립대들

을 대부분 제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의 위상을 갖춰왔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남호 총장은 "우리대학이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을 포함한 재로 키워내기 위해 도입한 다양한 제도들이 알맞게 정착해 꾸준히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성장세가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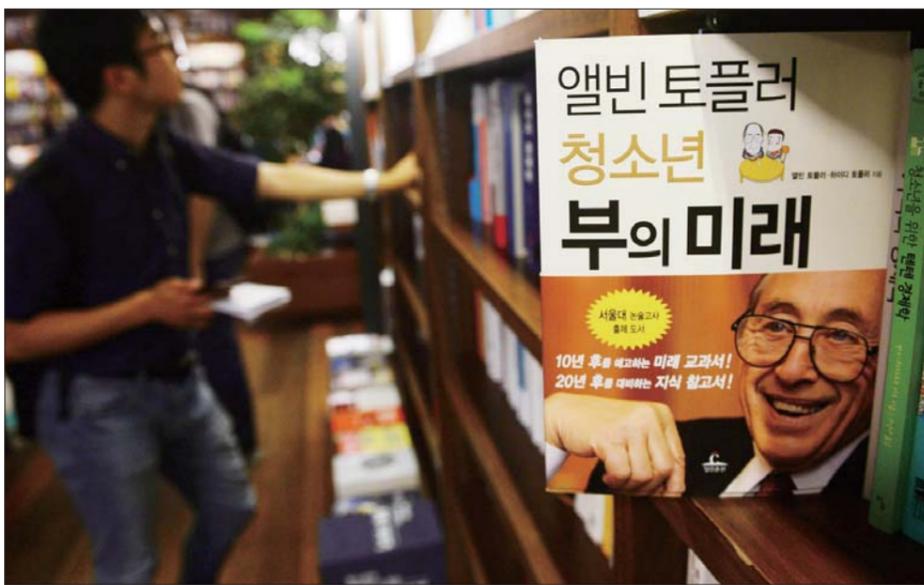
전통문화전당 전주 완판본 서적 복본 본격화

17~20세기 초까지 전라감영 간행 서적 70여권 전주 전통한지로 복본

조선왕조실록에 이어 전주완판본 서적도 전주 전통한지로 복본 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전통한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전라감영에서 간행된 완판본 서적 70여권을 복본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주 완판본 서적 복본화 사업'은 서적의 멸실에 대비하고 전시·홍보 등 문화사업의 아이টে็ม으로 활용, 한지 산업의 중심지인 전주의 기록문화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앨빈 토플러의 서적 여기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전통한지로 복본되는 완판본 서적은 전주문화재단이 펴낸 도록 '전주의 책 완판본 백선'에 소개된 '주자서절요'를 비롯해 전라감영에서 만든 동의보감, 책판, 판소리가 소설이 된 열녀춘향수절가, 심청전, 퇴별가,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별세한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이 앨빈 토플러가 쓴 책을 찾고 있다. 앨빈 토플러는 미래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디지털 혁명, 정보통신혁명, 사회혁명, 기업혁명, 기술적 특이성에 관한 저작으로 유명하다.

붓글씨로 직접 쓴 소대성전, 심청전, 유교적 교양을 위해 읽은 논어, 대학, 아이들이 보던 명심보감, 천자문 등 17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전주에서 찍은 책들을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완판본 서적에 사용될 전통한지는 조선왕조실록용 보다 중급지 이하의 한지가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조선시대 제작 당시 낮은 등급의 전통한지가 사용된 데 따른 것으로, 현대 출판산업에 있어 전통한지를 일반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인쇄용 전통한지 품질 규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김영재 기자

도교육청, 진로진학 포트폴리오 캠프 '만족'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일 반고 진로진학 포트폴리오 캠프에 대하여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을 통해 일 반고 2학년 대상으로 진학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찾아가는 진로진학 포트폴리오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은 몇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진로진학상담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라고등학교와 근영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과성 검증은 마쳤다.

앞선 지난 5월 말 남원에서 임실과 순창지역을 모아 실시한데 이어 6월 11일 전주, 18일은 군산에서 캠프를 추진했다.

캠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학습유형검사와 해석,

학교생활기록부 분석과 상담, 진로 진학을 위한 학과 탐색, 주요 과목 학습코칭 등이 함께 이루어져 참여한 학생들의 설문 결과 94%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의 학교 수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토요일을 이용하고 있는 이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일반적인 숙박형의 캠프가 아니라 당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강의와 상담, 학습코칭 등의 병행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값지고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8일에는 익산지역을 대상으로 완광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8월 27일에는 정읍, 고창지역이 전북과학대학에서 실시되며, 9월과 10월에도 김제, 부안, 원주, 무주, 진안, 정수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민형 기자

도교육청, 익산·군산서 학부모 상담자원가 교육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다양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상담 자원 활동가 교육을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9회에 걸쳐 도교육청과 익산, 군산에서 실시한다.

권역별 내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교육도 11회에 나눠 익산교육지원청 외 10개 장소에서 열린다.

독서 성장교육 책 소풍은 7월 5일 진안공공도서관에서 고진하 시인을

초청, '상상의 힘 쑥쑥! 동화, 소설'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학교놀이 자원활동가 심화교육은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교육장에서 매주 화, 목, 토에 응급처치 및 안전 교육, 놀이 종류 및 방법 알기 등의 내용을 배운다.

동화연극 자원활동가 교육은 7월 6일과 13일 도교육청 8층 대회의실에서 안관순 동화연극전문가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동화연극 및 교구 제작을 실시한다.

/고민형 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